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인간

성경말씀: 잠22:6

2014년 4월 16일(수) 세월호 사건, 온 국민이 침통한 분위기, 세월호 실소유주 구원파의 유병언 씨와 그 일가, 이들이 저지른 불법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비리, 불법을 저지를까?”, “믿는 사람이 과연 그리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법을 피해 다니며 돈을 긁어모았다. “돈 돈 돈 ...”,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모을까?” 바울의 말(빌3:17-21), 탐욕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많다. 교회에 은행 혹은 신협이 들어서고 교회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탐욕은 우상숭배(골3:5)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우리는 나은가?” 교통 신호 우리도 많은 면에서 예외가 아니다(정도만 약할 뿐이다).

부정부패, 위업, 불법, 탐욕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과 결혼 시리즈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인간>,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지닌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공의, 정의 화평, 질서, 거룩함, 예의 바름), 미워하는 것(교만, 탐욕, 더러움, 무례함)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창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는 상대주의 도덕관이 들어옴(창3:5). 기독교는 절대적인 윤리/도덕, 마귀는 상대적인 것을 가르친다. 말세에 나타나는 뉴에이지 현상,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지난 몇 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보아 음. 킹제임스 성경 신자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많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모의 교육이 좌우한다(예의와 기본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벗어난 인간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장성한 후에는 교정하기가 어렵다.

구원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구원받아도 성화가 대단히 어렵다.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할까?

현시대 많은 부모들: 진화론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원리,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때를 써서라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서라도 이겨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이들 교육의 현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운영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말세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 “아이가 마땅히 가야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

I.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 관

- A. 이스라엘의 아이 구분: 아이(한 달에서 5살), 소년/청년기(5살에서 20살)(레27:1-7)
- B. 아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 C.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존재
- D. 아이는 하나님의 유산(시127:3)
- E.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삶의 가장 큰 목표

II.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

- A.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출20:12; 엡6:1-3, 뒤의 6명령 중 첫째)
 - 1.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가장 크게 생각할 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 2. 부모를 멸시하면 죽음(출21:15-17; 신21:18-21). 5월 8일 어버이날 효도
- B. 부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신6:4-9).
 - 1. 하나님, 말씀, 유월절 행사, 법규를 가르쳐야 한다(신6:12-14; 20-25).
 - 2.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을 기억해야 한다(수4:6-7).

3. 주님이 하신 일들과 법규들을 가르쳐야 한다(시78:4, 5-8).

C.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고 있는가?

III. 잠언: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글, 3,000개의 잠언(왕상4:32)

A.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 줌(잠1:8-10; 2:1; 3:1 등).

B.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잠언 기자는 잠22:6에서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쳤다.

1.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2. 어려서부터 배운 길이 결국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딤후1:5; 3:15).

3. 누가 훈련시키는가? 1차적으로 부모가 훈련시킨다. 2차적으로 교회와 학교가 가르친다.

a. 폭력과 폭언과 음주와 음담패설과 드라마 등으로 아이를 포화상태로 만들면 아이가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다.

b. 부모가 예배, 성경,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일을 사랑하면 아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끔씩 예외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4. 그래서 부모는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잠1:7; 마10:28).

IV. 훈련이 필요한 이유: 성경이 말하는 아이들의 특징

A. 단순하다(잠1:22). 어리석다. B. 분별이 없다(잠14:15).

C.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잠9:16).

D. 한 마디로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매여 있다(잠22:15).

E. 그래서 그대로 두면 나중의 결과가 참담하다(잠19:13; 14:18). F. 딤펢전1:9-10

V. 해결책: 성경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과 그 결과(기본 인성, 예의)

A. 음녀의 길에서 벗어난다(잠2:16-19; 5; 6:20-35; 7; 22:14; 23:26-28; 31:3).

B. 부모의 훈계에 순종한다(잠3:11-12; 12:5-6; 15:32; 23:13-14).

C. 그래서 잠언은 훈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한다(잠4:13).

VI. 교회 학교의 목표: 최소한의 인성 교육

A.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6:6-11, 11:27 등).

B.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11:1; 16:11 등)

C. 말과 성질의 절제(12:18 14:17 등): 우리 교회에서는 폭력, 폭언, 불순종을 용납할 수 없다.

D. 정직해야 한다(12:22; 16:13; 24:26).

1. 성경에 8번, 개역성경은 다른 단어로 대체, 행6:3,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E.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13:20; 18:24). 특히 배우자를(18:22; 31:10-31)

F.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15:16-17; 16:8; 17:1).

G. 사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열매이다(갈5:22-23).

결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 우리의 가정교육이 환경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폭력 폭언을 행사하지 않는 아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 수단 방법을 가릴 줄 아는 아이

세 살 교육이 여든 간다. 좋은 아이, 가정, 교회, 사회, 국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한다.

최소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야 한다.